

## 2001년 정기총회 소식

- 일시: 2001. 2. 13(화) 18:30
- 장소: 과총회관 12층 과학클럽(역삼동 소재)

이날 총회에는 총회원 420명중 위임 25명을 포함한 116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황상모 회장의 축사에 이어 전봉수 회장의 개회인사, 2000년 업무보고 및 감사보고가 있고 난 후 전봉수 회장의 주재로 제8대 신임 회장 및 감사선출이 이어졌다.

이날 회장선출방식은 2001년1월30일 정례이사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른 것으로 “회장선거는 자율적 개별추천 선거방식을 채택하여 1차투표에 의한 득표순위 3인을 천거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고, 이중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



하는 방식을 채택기로 한다”는 방식에 의해 진행되었다.

1차투표 결과 유병역 회원(신한건축, 상무)이 총투표수 88표중 과반수인 59표를 얻어 2차투표 없이 제8대 회장에 당선되었다. 또한, 임기를 마친 황의춘 감사의 천거로 선출된 유소춘 회원(유구조, 대표이사)이 김상환 감사와 함께 우리회 감사일을 맡게 되었다.

## 우리회 유병역 신임회장

### ▶ 프로필

유병역 신임회장은 1942년생으로 한양대 건축공학과, 한양대 대학원, 한양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졸업하고 78년에 구조기술사 자격을 획득하였다. 일본의 오카 건축설계, 현대건설, 한진중공업을 거쳐 지금은 신한종합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현재는 홍익대 겸임교수, 구조기술사시험출제위원, 건축기사/산업기사 시험출제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기능심사관, 한국전산구조공학회 감사, 한국콘크리트학회 대의원 등의 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한건축학회, 한국강구조학회의 기술상, 대한민국건설기술인상 등을 수상하였다.



### ▶ 취임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역대 회장님, 콘크리트학회 이리형 회장님, 한국기술사회 황상모 회장님, 권택진 교수님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에 따른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구성하게 될 임원진들과 함께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건축구조기술사가 처음 배출된 것이 1975년(12회)이고 그 당시 9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여 25년이 지난 지금은 62회까지 42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는 건축구조 기술사회도 구성되지 못했고, 그 후 얼마간은 사무국 여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능한 사무국 여직원도 있고, 웹사이트가 구축되었으며 News Letter지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애로사항도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발전과 업적은 전임회장님들의 탁월한 지도와 희생적인 노력과 임원진을 비롯한 전 회원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까지 전임회장님들이 수행해온 각종 사업의 추진과 2001년도 정기총회에서 밝힌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일은 창립취지를 살리면서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회원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 회원께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계속하여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